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 무 실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TEL : 02-835-1813
TEL : 02-835-1812
TEL : 02-835-1810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매 미사 후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잠·가게·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길 10(대림1동) / 홈페이지 <https://club.catholic.or.kr/daerim1004>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홍보 주일’ 2차헌금 (오늘)

5월 16일(주님 승천 대축일)은 제55차 ‘홍보 주일’로 세상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톨릭평화신문과 가톨릭평화방송을 위한 특별헌금(2차헌금)이 있습니다.

✦ 성바오로관 앞 주차 안내

성바오로관 앞 주차시 주일에는 일방통행으로 이용 바랍니다.(평일은 양방향 이용 가능)
일방통행길에도 주차 가능하며, 일방통행길에 주차했을 경우 미사 후 바로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 5월 23일 ‘헌미헌금 봉헌의 달’ 2차헌금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헌금으로 환산하여 5월 23일(성령 강림 대축일)에 2차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고통 받는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5월3일~5월9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반
김현준	안드레아	신길동 우정2차아파트	12-5
허경	알렉산델	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14-4
홍민기	사무엘	신대방동 597	19-2

✦ 성당청소: 5월 17일(월) 9·10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5월3일~5월9일)

주일헌금	5,365,830	-	-
교 무 금	9,377,000	성소후원금	172,000
건축헌금	145,000	백신나눔	100,000
감사헌금	안은석 다니엘	30만원	악명 30만원
	김연수 라파엘	7만원	악명 10만원
			악명 5만원
양원성당 후원금	- 일사불 납부 약정액: 50,654,000원(179명) (당일 현금봉헌 2,784,000원 포함) - 월 납부 약정액: 40,140,000원(87명) - 약정액 총합계: 90,794,000원		
	양원성당 김성만 안드레아 신부님과 교우들이 우리 본당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묵상글]

자신이 믿는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에서 제자가 된 베드로는 말씀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루카 5,4-6)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며 자기에게서 떠나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10)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한편으로 용기를 발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과 불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호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도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이차적인 용기’가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경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고 자신을 내맡기지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러한 모험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가장 큰 열매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의 모습이 없다고 느낄수록 더욱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출처: 게르하르트 바우어 신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 중에서

※평화방송 미사 시간

- 평일(월~토): 06시, 09시, 12시, 18시
- 주일: 06시, 09시, 12시, 18시, 21시